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상하이거래소 외국계기업 상장 연기 전망

- 당초 올해 중반 예정되었던 외국기업의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 계획이 법률 및 기술적 문제 등으로 본격적인 시행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됨.
 -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야오강(姚剛) 부의장은 최근 개최된 한 재정 관련 포럼에서 당초 올해로 예정된 해외기업들의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이 법률 및 기술적 문제로 인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함.
 - 그는 외국기업의 중국증시 상장에 앞서 회계기준과 투자자보호 관련 법률 및 공개시스템 등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 법률적·기술적 문제에 대해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, 이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작업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힘.

- 상하이시의 국제금융허브체제 구축 및 외국기업의 중국 내 투자여건 마련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상장 계획에 대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.
 - 중국정부의 상하이시 국제금융허브체제 구축 및 중국증시의 개방화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해외기업들의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은 중국증시 수준을 제고하고 중국 투자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시킨다는 면에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임.
 - 현재 영국의 HSBC홀딩스, 나스닥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나스닥 OMX그룹 등 다수의 외국기업들이 상하이거래소 상장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등 미국기업 및 독일, 러시아 등 유럽기업, 홍콩기업 등 많은 해외기업들이 상장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.
 -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상장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도 유럽발 재정 위기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정대로 연내상장이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.

(증권일보, 로이터, 6/28)